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 복합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 보 기 > —

- ㄱ. 분배 과정에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 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민주 사회에서도 존재한다.
- ㄷ. 사회적 가치들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 ㄹ. 단일한 정의의 기준을 사회의 다양한 분배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 : 신체는 영혼이 진리와 인식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 가능한 신체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참 존재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 을 : 죽음은 그때마다 현존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다. 현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현존재일 수 없다'는 가능성이다.

- ① 갑 :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은 진정한 진리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 ② 갑 : 육체와 달리 영혼은 죽은 이후에 흔적 없이 소멸하게 된다.
- ③ 을 :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인간은 주체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 ④ 을 : 죽음의 가능성을 완전히 잇는 것은 현존재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 ⑤ 갑, 을 : 죽음을 불안해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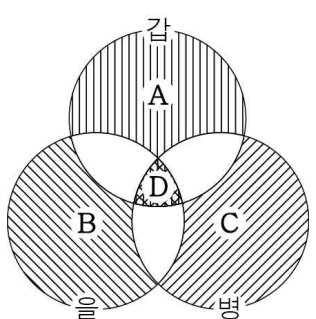
8.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복제 기술의 발달로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술 생산 시장에서 진품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아우라'를 활용하는 것은 효력을 잃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동안의 예술은 그것이 지니는 유일무이한 가치, 즉 아우라에 바탕을 두었다면 이제 예술은 이와 같은 고전적 가치에서 벗어나 정치와 같은 사회적인 요소들에 바탕을 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찬양받을 존재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함과 동시에 아름다움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작 활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① 예술 작품의 유일무이함이 예술의 유일한 척도인가?
- ② 작품 생산 방식의 변화는 예술의 아우라를 위축시켰는가?
- ③ 대량 생산은 작품의 아우라를 극대화하는 것에 기여했는가?
- ④ 복제된 예술 작품은 원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는가?
- ⑤ 예술을 평가하는 고전적 가치는 정치 참여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가?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켰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p> <p>을 : 도덕적 관심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 있는 유기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목적 추구 능력이고, 이를 지닌 존재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임이 분명하다.</p> <p>병 :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 안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 < 범 례 > —</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div>

— < 보 기 > —

- ㄱ. A : 생명을 지니지 않는 존재들도 도덕적 배려를 받아야 한다.
- ㄴ. B : 모든 생명체들에게만 고유의 선(善)과 내재적 가치를 동시에 지닐 자격이 부여된다.
- ㄷ. C : 쾌고감수능력은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 ㄹ. D : 인간은 필요할 경우 식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 고유한 성의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은 타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다.

을 : 고유한 성의 가치는 정당한 혼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사랑에 기반한 부부가 주체가 되어 성적 관계의 결과로 출산에 기여하는 성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성을 결혼과 결부시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성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성적 행위의 충분조건이고, ㉣성의 인격적 가치와 생식적 가치를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개인의 자유의사만으로는 성행위를 정당화하기 부족하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1.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정의는 운명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책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을 :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기 이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불복종 행위가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이다.

병 :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이 부정의한 법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다.

(나)

<보 기>

ㄱ. A :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양심에 있는가?
 ㄴ. B :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되는 불복종 행위가 있는가?
 ㄷ. C : 시민 불복종은 특정 법률에 대한 충성심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가?
 ㄹ. D : 시민 불복종은 정책 변화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체제 변혁을 의도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일정한 도덕적인 마음(恒心)을 갖출 수 없다. 군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덕적이면서 풍족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을 :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 중 수호자는 시민 중 누구도 통행이 금지되는 그러한 집이나 건물을 가져서는 안되며, 공동 식사 및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

- ① 갑 : 국가 안에는 경제적 안정 없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② 갑 :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 간의 구별은 필요하다.
 ③ 을 : 모든 계층이 국가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④ 을 : 이상 사회에 도달하게 되면 계층 간의 구별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⑤ 갑, 을 : 구성원들이 사회적 역할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13. (가)~(다)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예술의 눈은 아름다우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임금과 대신들이 나라를 돌보지 않고 큰 종을 두드리고 북을 친다면 백성들은 입고 먹을 재물을 얻을 수가 없다.

- ① (가) : 예술은 도덕적 선을 권장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② (나) : 도덕적 내용의 포함 여부는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
 ③ (다) : 음악의 가치는 백성들의 삶과 관련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④ (가), (나) :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⑤ (나), (다) : 음악이 해로운 본질적인 이유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1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남들보다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경우일 것이다.

을 :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을 존중하기에 앞서 분배 정의에서는 소유 권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소 국가는 오직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만을 요구할 뿐이다.

- ① 갑 : 사회적 부와 지위의 불균등한 분배가 언제나 부당한 것은 아니다.
 ② 갑 : 공리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분배는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을 : 국가의 시민들은 소유물에 대한 정부의 개입들 중 일부분을 허용한다.
 ④ 을 : 소득에 대한 무분별한 과세는 국가가 노동의 결과를 강점하는 것이다.
 ⑤ 갑, 을 : 국가는 개인들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소득을 분배함이 마땅하다.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학에 기반한 두려움의 논의에 주력해야 한다.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해로움에 관한 이야기에 인간은 귀 기울이게 된다.

<보 기>

ㄱ.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ㄴ.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ㄷ. 호혜성은 후세대와 관련된 인간의 도덕적 의무의 특성이 아니다.
 ㄹ. 자연 보호를 위해 인간은 자연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자연 상태는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하나의 인격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을 :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롭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보 기>—
 가. 국가는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구성될 수 없는 정치적 산물이다.
 나. 자연 상태에 대한 불만은 사회 계약을 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다. 국가 구성원들은 국가 형성 이후에는 선한 본성을 망각하게 된다.
 라.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이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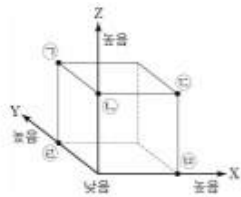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일들을 희생하지 않고도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을 : 원조의 주된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를 원조에 적용할 경우 우리는 원조의 주된 목적을 망각하게 된다.

- ① 갑 : 인접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원조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
 ② 갑 : 원조 시행의 결과로 원조 주체와 대상국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
 ③ 을 : 무질서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은 모두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을 : 빈곤 해소는 원조의 결과로 수반되는 결과들 중 하나일 수 있다.
 ⑤ 갑, 을 : 원조는 도덕적 행위이지만 개인의 의무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18.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현대 의학이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에 해결할 수 없었던 유전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다.
 (나) :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아무리 막대한 편익을 가져다 주어도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기 이전에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치료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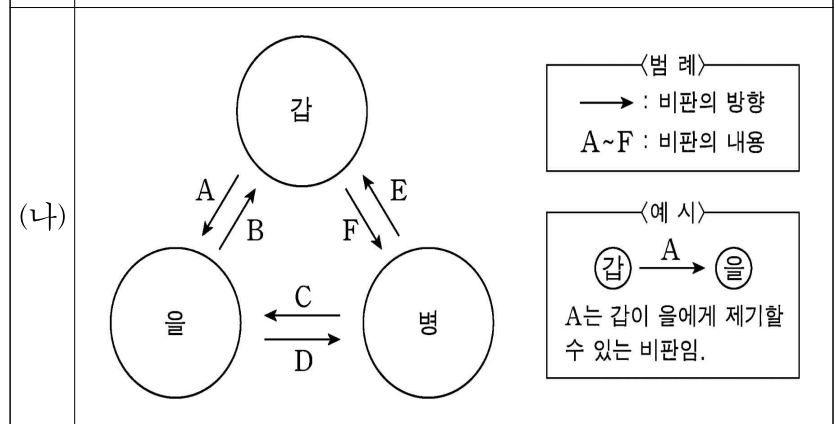


- X: 유전자 치료의 긍정적 편익을 중시하는 정도
- Y: 유전자 치료의 불완전한 안정성을 우려하는 정도
- Z: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법을 집행할 때 살인자는 시민이라기 보다는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의 보존과 살인자의 보호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 우리가 형벌을 집행하기 이전에 고려해보아야 할 점은, 공리의 원리에 기반하여 과연 그 형벌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병 : 살인자에게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사형은 오히려 살인자를 존중하는 형벌일 수 있다.



- ① A : 사형은 경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형벌이 아님을 간과한다.
 ② B, D : 사형은 사형수의 인격을 침해하는 형벌이 아님을 간과한다.
 ③ C : 형벌을 정당화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근거가 존재함을 간과한다.
 ④ E : 국가안전의 확보는 형벌 집행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을 간과한다.
 ⑤ F : 사형 집행의 결과로 시민들의 공포감이 줄어들 수 있음을 간과한다.

20.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주민의 문화와 주류 사회의 문화를 동등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국가는 소수 집단의 문화 또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체성이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정해야 한다.

—<사례>—
 00국의 정책 담당자인 A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포비아(phobia)’ 현상의 폭력적 수위가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A는 이 현상이 이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문화의 이질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함을 알아야 한다.
 ③ 이주민들의 문화가 기존 문화에 비해 우월함을 홍보해야 한다.
 ④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⑤ 혐오로 인해 이주민들의 문화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